

31 내무행정치적사(토목행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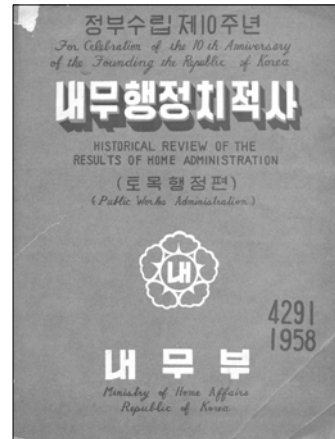
1958년 / 내무부 / 365면 / 01.10-07 내37내 1958

이 책은 1958년 12월에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으로 편찬한 것이다. 당시 내무부에서 발행한 것인데 오늘날 건설부의 전신인 토목국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5·16 이전(1961년) 자유당정부 시절의 토목행정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자

료는 365면의 보고서로, 1948년 건국 이후의 일관된 연도별 통계는 없지만 해방 이후 1948년의 건국까지 미 군정(美軍政) 3년 간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큰 장점이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 해방에서 1948년까지의 우리나라 토목행정에 관한 것은 공백 상태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당시 토목행정 조직은 내무부 토목국에 서무과, 자재과, 도시과, 도로과, 이수과와 중기과를 두는 한편 국립토목시험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지방조직으로서는 국비공사를 담당할 지방 건설국을 서울(서울·경기, 강원, 충북, 충남 담당)과 이리(裡里, 지금의 익산; 전북, 전남, 제주 담당)와 부산(경남북 담당)에 두고 산하에는 서무과와 제1공사과(도로), 제2공사과(하천)를 두었다. 이 당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표와 같다.



| 연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합계 |
|------|---------------|----------------|----------------|
| 1954 | 155,000,000 | 2,771,186,558 | 2,926,186,558 |
| 1955 | 968,000,000 | 11,353,739,900 | 12,321,739,900 |
| 1956 | - | - | - |
| 1957 | 1,352,500,000 | 12,316,384,000 | 13,668,884,000 |
| 1958 | 2,132,863,400 | 10,936,848,300 | 13,069,713,700 |

(단위: 원)

한편 1954년~1957년까지의 외자(外資) 도입은 약 2,400만 달러였다. 1958년 현재 건설업체수는 1,630개사였고, 건설 기술자수는 3,122명에 불과했다. 또한 1958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국도, 지방도, 시읍면도) 연장은 2만 7,169km, 이 중 국도 연장은 1944년의 6,110km가 1957년에는 5,705km로 줄었다. 이 가운데 포장된 부분은 368km에 불과했다.

미 군정 3년 동안의 중요 건설실적은 강원도 도로(강릉-서울) 개수 외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한편 상수도는 1939년 급수 인구 92만 7천 명에 급수량은 1일 10만 1,000m³에 불과하던 것이 1957년에는 급수인구가 388만 명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1일 급수량은 2만 9,000m³로 늘어났다.

도시계획 적용도시는 1958년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46개 시에 달하고 있다. 중장비는 미군으로부터 507대(중고품)를 인수받았으나 6·25때 파손되어 ICA자금으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352대를 도입했다.

